

[보도자료] 쿠팡,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 지역 기업에 10억 원 규모 지원

2020. 7. 8.



- 1차 기획전 기간 동안 전년 대비 경북 지역 업체 매출 233% 달성
- 연말까지 경북 지역 소상공인 상품 2천여 종 최대 56% 할인
- 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판매 촉진 위해 쿠팡과 경상북도 각각 5억 원 규모 지원

2020. 7. 8. 서울 – 쿠팡과 경상북도가 또 한 번 협력한다. 쿠팡은 ‘힘내요 대한민국 경북 2차 기획전’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.

이번 기획전은 경상북도의 지원으로 5억 원 규모의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. 고객은 151개 경북 지역 업체의 상품 2천여 종을 최대 56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. 여기에 경북 지역 상품이 고객에게 더 잘 노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쿠팡이 추가로 5억 원 규모의 마케팅, 광고 활동을 지원한다.

지난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‘힘내요 대한민국’ 경북 1차 기획전에 참여한 업체의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233% 증가했다. 1차 기획전에 참여한 경북 기업의 32%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매출을 기록했다.

특히 곰팡이 제거제와 배수구 클리너 등 천연소재 기반의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오가닉 K는 지난 4월 1차 기획전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,802%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다. 김대송 오가닉 K 대표는 “힘내요 대한민국에 참여해 코로나19로 둔화했던 매출 상승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”며 “세제류 상품은 대기업 브랜드가 많아 중소기업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쉽지 않는데, 쿠팡과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”고 말했다.

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“힘내요 대한민국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”며, “우수한 품질을 갖춘 중소기업의 제품이 쿠팡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쿠팡은 지난 4월부터 7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 및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한 활동을 이어 왔다. 6월부터 시작한 ‘힘내요 대한민국’ 2차 기획전은 2020년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